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February 2026 Issue | Vol. 09

SPECIAL POINTS OF INTEREST

- 필리핀 제조업 활동, 1월에 9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 page 1
- 수출업체들, BoC 서비스 수수료 인상에 경계 — page 1-2
- 필리핀 관광, GDP 기여도에서 태국 제쳐 ‘놀랄 일 아냐’ — 경제학자 — page 2-3
- 1분기 5% 이상 성장을 회복, 2026년 연간 성장 전망도 긍정적 — page 4
- PEZA, 11개 신규 경제특구 승인 예상 — page 4-5
- 에너지부, 태양광 순계량 허가 3일 이내 발급 의무화...행정 절차 간소화 — page 5
- 발리사칸, 디지털 경제 성장에 맞춰 정부에 경쟁 규제 강화 촉구 — page 6

필리핀 제조업 활동, 1월에 9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February 02, 2026 | Nyah Genelle C. De Leon | Philippine Daily Inquirer

필리핀 마닐라 - 필리핀 제조업 부문이 1월에 견조하게 회복하며 강한 신규 주문 증가에 힘입어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의 공장 활동을 기록했다.

S&P 글로벌이 약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필리핀의 구매관리자지수(PMI)는 2026년 1월에 52.9로 급등했으며, 이는 12월의 50.2에서 크게 오른 수치다.

이번 수치는 4월 이후 영업 환경이 가장 크게 개선된 것을 나타낸다.

보고서에 따르면, 회복세는 기초 수요가 개선되면서 신규 주문이 더 빠르게 증가한 데 힘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증가 또한

제조업체들이 생산 수준을 높이도록 이끌었으며, 생산량은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경제학자 메리암 발루치(Maryam Baluch)는 “2025년 하반기 동안 장기간 둔화된 성장세가 이어진 후, 2026년 첫 PMI 자료는 모멘텀에 뚜렷한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발루치는 이어 “신규 주문은 강하고 가속화된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부분적으로는 수출 수요의 제상승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그 결과, 생산은 5개월 만에 처음으로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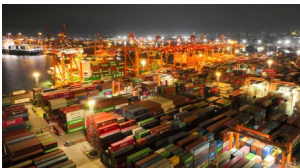
A factory in the Philippines. Factory activity hit a nine-month high in January 2026 as new orders climbed. (INQUIRER FILE PHOTO)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 강한 출발에도 불구하고 기업 신뢰감은 크게 약화되었다. 향후 12개월에 대한 기업들의 낙관 전망이 기록상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주요 수출 시장의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부담 때문이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72032/philippine-manufacturing-activity-hit-9-month-high-in-january>

수출업체들, BoC 서비스 수수료 인상에 경계

February 01, 2026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essWorld



Aerial photo of ICTSI's flagship Manila 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at the Port of Manila — ICTSI.COM

필리핀 수출업자연맹(Philexport)은 새로운 통관 처리 시스템 도입으로 세관 서비스 수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주말에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 절차의 간소화와 디지털화에는 찬성하지만, 새로운 세관 처리 시스템 사용과 관련해 제안된 수수료 인상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수수료가 약 300페소(P300) 수준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나, 이 제안서 사본을 제공받지 못해 현재로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초기 정보에 비춰볼 때, 수수료가 크게 인상되는 이번 제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수수료 체계는 화물 데이터 교환센터 전자 무역 신고 시 건당 45페소(P45), 컨테이너 반납 관리를 위한 Go Fast 플랫폼 사용 시 컨테이너당 40페소(P40), E-Konek 수입 허가 및 신고 수수료로 55페소(P55)가 부과된다.

수출업자들은 또한 해상 전자무역 명세서(e-trade manifest)에 대해 P18, 항공 전자무역 명세서에 대해 P23의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Cont. page 2]

수출업체들, BoC 서비스 수수료 인상에 경계

[Cont. from page 1]

“이와 같은 수수료 인상은 제품 및 서비스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 수출업체와 수입업체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라고 해당 단체는 밝혔습니다.

Philexport에 따르면, 제안된 새로운 시스템은 먼저 반관료주의청(Anti-Red Tape Authority)의 규제 영향 평가(RIA)를 거쳐야 합니다.

“RIA 결과는 관세청(Bureau of Customs, BoC)이 무역 및 경제 발전의 맥락에서 관세 처리 시스템 도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세청은 새로운 시스템 개발 및 배포 비용을 부담하거나 보조해야 합니다. 현대화 사업은 무역 커뮤니티에 혜택을 주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Philexport 회장 Sergio R. Ortiz-Luis, Jr.는 서비스 제공자가 결정된 후, 수수료의 구성 요소를 세분화하여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또 다른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공청회를 조직했으며, Philexport가 이에 참여했습니다.

BoC의 E2M(전자-모바일) 시스템을 대체할 예정인 제안된 관세 처리 시스템은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시스템 응답 지연, 알림 미수신, 입력 및 형식 오류, 다른 시스템과의 통합 공백, 문서 첨부 지원의 시스템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6/02/01/727782/exporters-wary-of-boc-service-fee-hikes/](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6/02/01/727782/exporters-wary-of-boc-service-fee-hikes/)

필리핀 관광, GDP 기여도에서 태국 제쳐 ‘놀랄 일 아냐’ — 경제학자

February 02, 2026 | Ma. Stella F. Arnaldo | BusinessMirror

세부시 —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필리핀은 관광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기여도 면에서 태국을 넘어섰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여행관광협회(WTTC) 2025 경제영향 보고서(EIR) 자료를 인용하며, 아시아개발은행(ADB) 경제학자 산치타 바수 다스(Sanchita Basu Das)는 필리핀 관광 산업이 2024년 국내총생산(GDP)에 918억 달러를 기여했으며,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광 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ASEAN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2024년 동남아시아를 방문한 국제 여행자 수가 3,500만 명으로 최다였던 태국의 관광 산업은 GDP에 673억 달러를 기여하는 데 그쳤으며,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8%였다. 다스 경제학자는 1월 29일 열린 제29차 ASEAN 관광장관 회의에서 이 내용을 발표했다.

전 사회경제계획국(PSA) 장관 단테 B. 칸라스(Dante B. Canlas)는 비즈니스미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필리핀 GDP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태국보다 크다고 해서 이상한 것은 아니다. 태국의 GDP가 필리핀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분모가 클수록 비중은 작아진다.”

그는 이어서 “한편, 필리핀의 관광 수익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태국에서는 제조업 수출 수익이 빠르게 성장하며 GDP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2024년 기준,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에 따르면 태국의 상품 수출액은 3,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였다.

2026년, 1,030억 달러 증가 전망

2024년 필리핀의 지역 경제 총생산은 4,547억 2천만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1인당 GDP는 약 3,925달러(2015년 기준 물가)였다. 같은 해 태국의 GDP는 4,711억 8천만 달러, 1인당 GDP는 6,574.50달러(동일 기준 물가)에 달했다.

고용 측면에서는 필리핀에서 관광 관련 일자리가 1,120만 개로, 전체 고용에서 23%를 차지했다. ASEAN에서는 인도네시아가 관광 일자리 수에서 가장 많아 거의 1,300만 개를 기록했지만,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에 불과했다. [Cont. page 3]



필리핀 관광, GDP 기여도에서 태국 제쳐 ‘놀랄 일 아냐’ — 경제학자

[Cont, from page 2]

Impact of Tourism in SEAsia (2024)	Tourism's Contribution to SEAsia GDP \$373.9 B (9.4%)		Tourism Jobs in SEAsia 44.9 M (13.5%)	
Economy	Total GDP Contribution		Employment Contribution	
	Share of Tourism to GDP (%)	Tourism GDP Contribution (\$ billion)	Share of Tourism Jobs to Total Employment (%)	Tourism Jobs (thousands)
Brunei Darussalam	6.0	1.1	6.8	14
Cambodia	12.8	6.3	27.1	2,385
Indonesia	5.1	71.7	9.0	12,910
Lao PDR	11.3	1.8	16.9	335
Malaysia	10.1	42.7	14.9	2,480
Myanmar	6.6	4.7	5.2	890
Philippines	19.9	91.8	23.0	11,222
Singapore	10.1	54.6	14.2	570
Thailand	12.8	67.3	20.1	8,013
Viet Nam	7.0	31.8	11.8	6,075

Source: WTTC Economic Impact Report Factsheets (2025)

관광부 장관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프라스코(Christina Garcia Frasco)는 외국인 방문객 수를 늘리라는 대중의 압박 속에서도, ADB 보고서를 바로 자랑하며 발표했다. 그녀는 보도자료에서 “이 수치는 필리핀이 ASEAN에서 선도적인 관광 경제국 중 하나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관광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포용적 성장, 일자리 창출, 경제 회복력의 강력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WTTC는 2025년 필리핀 경제영향보고서(EIR)에서 올해 관광이 필리핀 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을 21%로 예상하며, GDP에 약 1,026억 달러(5.6조 페소, 1달러=57.5페소)를 추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4년 관광 기여도 대비 11.8% 증가한

수치이지만, 2024/2023년 대비 27.6% 증가율보다는 성장 속도가 둔화된 것이다. 올해 추정된 관광 기여액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기록된 904억 달러보다 13.5% 높은 수준이다.

ASEAN 관광 일자리 4,500만 개

다스에 따르면, 관광 산업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약 3,740억 달러를 기여했으며, 이는 지역 GDP의 9.4%에 해당한다. 관광 관련 일자리는 약 4,500만 개로 기록되었으며, 동남아시아 전체 일자리에서 13.5%를 차지했다.

그녀는 “관광 의존도는 ASEAN 국가별로 다르며, 관광이 서비스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45~60%에 달한다. 이는 글로벌 평균 25%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1인당 관광 수익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에는 1,085달러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북미(2,165달러), 중앙아메리카(1,441달러), 북유럽(1,510달러)보다는 낮다”고 덧붙였다.

WTTC 데이터를 인용하면, 필리핀의 1인당 평균 관광 지출은 1,632달러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약 38% 높은 수준이다. 이 수치는 2024년 싱가포르의 1인당 평균 방문객 지출(1,443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다만 총 방문객 수익에서는 싱가포르가 필리핀을 크게 앞서, 각각 240억 달러 대 97억 달러를 기록했다.

방문객 수 측면에서는, 필리핀은 2024년 540만 명으로 동남아시아에서 하위권 3위를 기록했으며, 캄보디아에 대한 자료는 제공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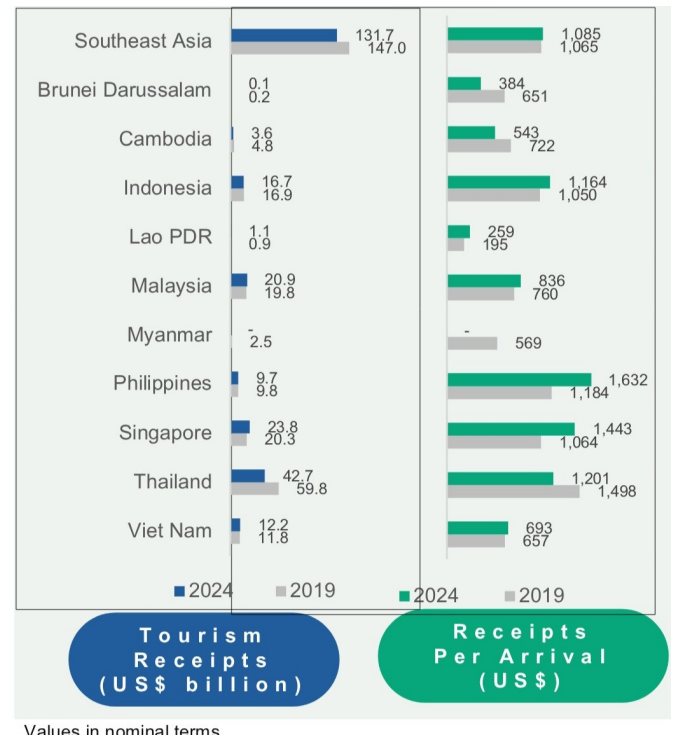


Image credits: Michael Edwards | Dreamstime.com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6/02/02/phl-tourism-outpaces-thailand-in-gdp-impact-adb-report/>

1분기 5% 이상 성장을 회복, 2026년 연간 성장 전망도 긍정적

February 02, 2026 | Louella Desiderio | The Philippine Star



Fair weather is seen at the Ortigas Business Center in Pasig City on November 5, 2025.

STAR / Michael Varcas

마닐라, 필리핀 — 아시아태평양대학(University of Asia and the Pacific, UA&P)에 따르면, 필리핀 경제는 정부 지출이 개선되고 물가 상승률이 낮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분기와 2026년 연간 GDP 성장률이 5%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UA&P는 2026년 1월 발간된 *The Market Call Capital Markets Research* 보고서에서 “1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가 1조 6천억 페소 규모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LGU)에 조기 배정한 후 이번 분기 강한 경제 회복세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필리핀 경제는 2025년 평균 성장률 4.4%로 마감했으며, 이는 2024년의 5.7% 성장률보다 낮고, 정부 목표치인 5.5~6.5%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GDP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에는 3%로 둔화되었으며, 이는 이전 분기의 3.9% 성장률과 2024년 같은 기간의 5.3% 성장률보다 낮은 수치다.

경제 성장 둔화는 홍수 방지 사업 관련 부패 문제로 투자자와 소비자 신뢰가 약화된 점, 그리고 불리한 기상 조건으로 경제 활동이 차질을 빚은 것과 관련이 있다.

UA&P는 금리가 높게 유지됨에 따라 민간 건설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인프라 지출은 계속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긍정적인 요소로, 올해 1분기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UA&P는 “물가 상승률은 추가로 하락해 1월 기준 전년 대비 1.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물가 상승률은 전월 1.5%에서 1.8%로 올랐다.

이로써 2025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1.7%를 기록하며, 정부 목표치인 2~4%를 밑돌았다.

UA&P는 올해 1분기 물가 상승률이 평균 1.4%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UA&P는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이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BSP는 지난해 12월 마지막 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해 4.50%로 조정된 바 있다.

UA&P는 “2월 BSP의 기준금리 인하는 채권 및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활동과 민간 건설에도 활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6/02/02/2505042/return-over-5-percent-growth-q1-full-year-2026-seen>

PEZA, 11개 신규 경제특구 승인 예상

February 01, 2026 | Othel V. Campos | Manila Standard

필리핀 경제특구청(PEZA)은 2026년 3,000억 페소 투자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올해 11개의 경제특구를 추가 승인할 것으로 예상하며, 관련 공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PEZA의 테레소 팡가(Tereso Panga) 청장은 올해 초 2개의 경제특구가 승인된 이후, 28개의 경제특구가 대통령 공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관은 외국 자본의 조기 유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나머지 제안들을 우선 처리하고 있다.

팡가 청장은 주말 인터뷰에서 “공포 절차가 훨씬 빨라지길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투자 유입을 진정으로 가속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PEZA director-general Tereso Panga

2026년 투자 목표는 2025년 대비 15% 성장한 수치다. 팡가 청장은 이 수치를 PEZA의 과거 연평균 성장률 약 23%와 비교할 때 보수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Cont. page 5]

PEZA, 11개 신규 경제특구 승인 예상

[Cont. from page 4]

평가 청장은 4분기 최대 활동 이후 1월에는 일반적으로 투자 활동이 둔화되지만, 향후 몇 달 동안 기업들이 운영을 확대함에 따라 등록 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몇 가지 조정을 했지만, 긍정적인 성장 궤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현재 투자 계획에는 전자, 제약, 항공, 디지털 헬스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평가 청장은 일부 전자 분야 투자가 NVIDIA의 1차 공급업체와 관련되어 있으며, 제약 프로젝트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연계되어 있다고 확인했다.

그는 이러한 신규 프로젝트가 최근 해외 투자 미션에서 논의되었다고 전했다.

투자 환경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PEZA는 일부 규제 권한을 회복하기 위한 정관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여기에는 화재 안전 검사 증명서 발급 권한, 다양한 유형의 경제특구 승인 확대, 공포 절차를 신속화하는 메커니즘 등이 포함된다.

[Source: https://manilastandard.net/business/314698394/peza-expects-approval-of-11-new-ecozones.html](https://manilastandard.net/business/314698394/peza-expects-approval-of-11-new-ecozones.html)

에너지부, 태양광 순계량 허가 3일 이내 발급 의무화...행정 절차 간소화

February 02, 2026 | Gabriell Christel Galang | Mania Bulletin



PEZA director-general Tereso Panga

필리핀 에너지부(DOE)는 국가 지붕형 태양광 보급을 가로막는 관료적 장애물을 해소하기 위해 나서면서, 순계량(Net-Metering) 프로그램 참여자가 21,000명을 넘어섬에 따라 허가를 3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보다 적극적인 “정부 전 부문(whole-of-government)” 접근 방침은 셰런 가린(Sharon Garin) 에너지 장관이 지방정부, 에너지규제위원회(ERC), DOE 간 중복되는 권한을 간소화하려는 노력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

새로운 공동 행정각서(Joint Memorandum Circular)에 따라, 내무지방정부부(DILG)와 공공사업고속도로부(DPWH)는 지방자치단체(LGU)에 표준화된 신청서를 도입하고 주요 인증서 발급에 대한 엄격한 처리 기한을 준수하도록 지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지방 당국은 전기 허가를 3영업일 내에 발급하고, 최종 전기 검사 증명서를 7영업일 내에 발급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가정과 소규모 기업이 재생에너지 시스템에 투자하는 것을 오랫동안 저해해온 행정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업데이트된 지침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정해진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허가나 인증서는 행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DOE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갖춘 최종 사용자는 21,224명에 달했다. 이 설치 대부분은 루손(Luzon)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 비사야(Visayas) 지역이 많다. 순계량(Net-Metering) 시스템은 소비자가 태양광 패널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남은 전력을 전력망에 판매하여 미래 전기 요금을 상쇄할 수 있는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DOE는 개별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넘어, 분산형 전력 생산이 전체 전력망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필리핀의 고가 수입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태양광의 재정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변화의 일환으로, DOE는 자격을 갖춘 사용자가 이제 자신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력에 대한 재생에너지 인증서(RECs)를 소유하게 되며, 이 인증서를 재생에너지 시장을 통해 판매하거나 거래할 수 있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재확인했다.

또한, DOE는 “다중 위치 및 통합 순계량(Multi-Site and Aggregate Net-Metering)”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한 사용자가 동일 배전사업권 내 여러 전력 계정에 크레딧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이 단일 대규모 태양광 설비에서 경제적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Source: https://mb.com.ph/2026/02/02/doe-mandates-three-day-solar-net-metering-permits-to-cut-red-tape](https://mb.com.ph/2026/02/02/doe-mandates-three-day-solar-net-metering-permits-to-cut-red-tape)

발리사칸, 디지털 경제 성장에 맞춰 정부에 경쟁 규제 강화 촉구

February 02, 2026 | Dexter Barro II | The Manila Times

정부는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경제에서 기업의 성장 기회를 열고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 경쟁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필리핀 최고 경제학자가 밝혔다.

전체 소매 결제의 절반 이상이 디지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경제계획개발부(DEPDev) 장관 아르세니오 M. 발리사칸(Arsenio M. Balisacan)은 이 급속한 확장에 맞닥뜨리기 위해 필리핀의 경쟁 환경에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인용하며, 발리사칸 장관은 필리핀이 2023년 상품시장규제(PMR) 평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 중 하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의 점수는 2.4로, 전 세계 평균인 1.53을 상회했다.

PMR 점수가 낮을수록 규제 장벽이 적고, 시장 경쟁 환경이 더 우호적임을 의미한다.

발리사칸 장관은 독점금지 감시기관인 필리핀 경쟁위원회(PCC)가 주최한 포럼에서 “이는 규제가 여전히 상당하며, 경쟁을 강화하려면 규칙을 개선하고 시장 진입 장벽을 줄여야 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가 급속히 디지털화되는 오늘날, 건전한 경쟁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PCC 초대 의장을 지낸 발리사칸 장관은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 정책이 생산성, 포용성, 소비자 복지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투자와 서비스 개선을 저해하는 규제적 마찰을 완화함으로써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시장이 기술 혁신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하도록 만들면, 에너지와 통신 등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분야에서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발리사칸 장관은 “연결성이 비싸고 불안정하며 전력 비용이 높게 유지된다면 디지털 전환을 폭넓게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중소기업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경쟁 정책이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술들은 새로운 경쟁 환경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발리사칸 장관은 “혁신이 자리 잡기 전에 지나친 규제로 억제되지 않으면서도 경쟁과 핵심 안전장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AI 개발을 촉진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전환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 혜택이 폭넓게 확산될지 아니면 특정 계층에 집중될지는 기반이 되는 요소들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발리사칸 장관은 개혁을 통해 경제가 혁신을 촉진하고 투자자 신뢰를 구축하는 경쟁 환경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통계청(PSA)에 따르면, 2024년 필리핀 디지털 경제 규모는 2023년 2.09조 페소에서 7.6% 증가한 2.25조 페소를 기록했다.

디지털 거래는 이제 월간 소매 구매의 거의 60%를 차지하며, 2013년 1%에서 크게 증가했다.

Source: <https://mb.com.ph/2026/02/02/balisacan-urges-government-to-sharpen-competition-rules-as-digital-economy-grows>



PEZA director-general Tereso Panga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KOREAN AIR



A350



KOREAN AIR - Regional Office Manila
G/F LPL Plaza Bldg, 124 Leviste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8290-6430 (Local Language); 02-8540-1152 (English 24/7)
Weekdays from 08:30AM-5:30PM
mnlsmr@koreanair.com
www.koreanair.com

